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F. Schubert의 가곡  
"Viola(D.786)"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박진실

F. Schubert의 가곡  
"Viola(D.786)"에 관한 연구

박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박 진 실

# 인 준 서

박진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19세기 낭만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피아노가 발달, 보급되던 흐름 속에서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독일 가곡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는 여러 작가의 다양한 시에 곡을 붙였으며 또한 시에 맞는 다양한 형식을 사용했다. 그의 선율은 아름답고 풍성했으며 이 선율의 아름다움은 성악곡 뿐 아니라 기악곡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화성을 다루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데 그의 곡은 자연스럽게 전조되며 장조와 단조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감화음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의 화성적인 기법은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피아노 반주부의 역할이다. 슈베르트는 성악 선율을 받쳐주던 피아노 반주의 역할을 격상시켰다. 그의 피아노 반주는 시어를 표현하면서, 배경과 분위기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성악 선율과 함께 음악을 끌어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 논문은 슈베르트의 곡 “Viola(D.786)”을 연구한 것으로 그의 음악적 특징들을 작품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 곡은 발라드형식으로 ABC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와 음악적인 내용에 따라 수시로 박자와 조성이 바뀐다. 다만 주제 선율이 이따금씩 반복되는데 이 주제선율이 곡 전체의 통일감을 가져온다. 가사가 된 시는 ‘꽃의 발라드’라는 서사적인 장문의 시로 작가는 그의 친구 쇼버이다. 이 시는 미처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 너무 일찍 핀 제비꽃이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로 제비꽃과 봄이 의인화되어 표현된다.

선율은 시와의 일치를 가져오며 대체로 짧은 동기가 해당 부분에서 반복, 변형된다. 또한 3도 간격의 진행이 많이 등장하며, 반음 혹은 단3도의 진행,

연속적인 음의 스타카토 등은 시의 의미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장면이 바뀔 때 마다 등장하는 짧은 피아노 간주는 성악 선율에 앞서 새로운 장면의 분위기와 배경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반주 선율이 시를 표현하는 주요선율이 되기도 한다.

슈베르트는 화성의 변화를 통해 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분위기를 묘사했다. 시의 내용에 따라 장면이 바뀔 때에 임시표를 통한 점진적인 조성의 변화나 혹은 급작스러운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장조와 단조 사이를 넘나드는 것도 볼 수 있다. 극적인 상황에서는 각 마디마다, 혹은 각 박자마다 다른 화성으로 곡이 진행되며 감화음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듯 슈베르트의 다양한 음악적 특징들을 작품 속에서 살펴보고 표와 악보를 제시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연주시간이 10분 이상 되고 잦은 조성의 변화와 다양한 선율을 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작품이나 충분한 분석적 접근과 연습을 통해 연주한다면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19세기 낭만시대에 독일 가곡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며, 그의 가곡은 시, 선율, 피아노 반주, 화성, 형식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전 작곡가들의 작품과는 다른 예술적 면모를 보여준다. 가곡 "Viola(D.786)"는 그의 다양한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슈베르트의 생애 및 주요작품과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가곡 "Viola(D.786)"를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들을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국내에서 잘 연주되지 않는 "Viola(D.786)"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첫째, 슈베르트의 생애와 주요 가곡 작품을 살펴보고, 그의 음악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임인 슈베르티아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더불어 슈베르티아데의 일원으로 본 논문 주제의 시를 쓴 쇼버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슈베르트 가곡의 일반적인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그의 작품 "Viola(D.786)"의 가사를 번역 하고 시어의 표현, 반주의 역할, 화성을 분석함으로 그의 음악적 특징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슈베르트의 생애와 주요 가곡 작품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1797년 리히텐탈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하던 아버지 프란츠 테오도르 (Franz Theodor)와 모라바의 직공 집안 출신인 어머니 마리아 엘리자베트(Maria Elisabet)사이에서 태어났다. 슈베르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을, 형에게서 피아노를 배웠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음악 교육을 받았다. 성악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어 1808년 11살이 되던 해에 왕실예배당의 합창단원이 되었고 뒤이어 국립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812년 슈베르트는 변성기로 인해 합창단을 떠나야 했으나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더 머물며 안토니오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sup>1)</sup>에게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1813년 말 학교를 떠나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만난 8살 연상의 요제프 폰 슈파운(Josef von Spaun, 1788-1865)은 슈베르트의 음악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슈베르트와 평생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었고 슈베르트에게 프란츠 폰 쇼버(Franz von Schober, 1798-1882)<sup>2)</sup>, 문학가 요한 마이어호퍼(Johann Mayrhofer, 1787-1836)등을 소개했다. 또한 슈파운은 비록 반송되기는 했으나, 괴테의 시에 붙인 슈베르트의 곡을 괴테에게 보내기도 했다.

시와 문학을 사랑했던 슈베르트는 특히 예술가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5

---

1) 살리에리 :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로 주로 비엔나에서 활동했다.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의 스승이었고, 슈베르트가 국립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음악 감독이었다.

2) 쇼버 : 슈베르티아데의 일원으로 본 논문의 주제인 "Viola(D.786)"의 시를 썼다.

세 때에 이미 가곡을 작곡하기 시작한 슈베르트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을 당시 많은 걸작들을 작곡 했다. 그의 첫 걸작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은 1814년 그의 나이 17세에 작곡한 “실 잣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이다. 이 작품은 요한 볼프강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sup>3)</sup>의 <Faust> 중 발췌하여 곡을 붙인 것으로 피아노 반주로 물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표현했다.

그의 가곡의 해라 할 수 있는 1815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140여곡의 가곡을 썼다. 이 해에 “마왕(Erlkönig)”을 작곡했는데 이 곡에서는 3연음부의 피아노 반주로 말 발굽소리를 표현했다. “실 잣는 그레첸”과 “마왕”은 슈베르트의 가곡에서 피아노 역할과 기능의 혁신적인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곡으로 그가 시와 곡의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얼마나 탁월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범학교를 다닌 뒤 아버지 학교의 조교로 일했으며 1816년에는 라이바흐(Leibach)의 국립 음악학교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그의 친구인 쇼버의 집에 살면서 작곡에 전념했다. 1817년에는 “죽음과 소녀(Der Tod und das Mädchen)”, “송어(Die Forelle)” “음악에 부침(An die Musik)” 등의 가곡을 작곡했고, 바리톤 가수 포글(Johann Michael Vogl, 1768-1840)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 시기 즈음 슈베르트를 사랑하고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인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sup>4)</sup>가 생겨났는데 슈베르티아데에 관하여는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한다.

---

3) 괴테 : 괴테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독일문학의 주축을 이룬 문학가이자 철학자로 그의 작품은 많은 음악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4) 슈베르티아데 : 슈베르트를 후원하던 모임

21살이 되던 해인 1818년 여름 헝가리에 있는 에스터하지(P.A. Esterhaghy) 백작 집안의 음악 가정교사가 되어 얼마간 그의 딸을 지도했다. 1820년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왕”을 출판했고 그 이익으로 “실 잣는 그레첸”과 그 외의 몇 곡들도 출판할 수 있었다. 슈베르트는 두 편의 독일 연가곡을 썼는데 1823년에는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를 작곡했고 1827년에는 <겨울 나그네(Winterreise)>를 작곡했다. 두 연가곡 모두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sup>5)</sup>의 시에서 왔으며 자연을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828년은 슈베르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풍성하다 할 수 있는 다작의 해였다. 슈베르트는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sup>6)</sup>, 루드비히 렐스타프(Ludwig Rellstab, 1799-1860)<sup>7)</sup>, 요한 가브리엘 자이들(Johann Gabriel Seidl, 1804-1875)<sup>8)</sup> 등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였고 이때 작곡한 곡들은 슈베르트가 사망한 뒤 그의 친구들에 의해 편집되어 1828년 가곡 모음집인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로 출간되었다. 1828년 1월 28일 슈파운의 저택에서 열린 슈베르티아데 모임에서 슈베르트의 가곡 연주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그가 참석한 마지막 모임이 되었다.

슈베르트는 600여곡이 넘는 리트(Lied)를 작곡했고 가곡 외에도 미사, 오페라, 교향곡, 피아노 소나타, 실내악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작곡해 1,000여

---

5) 뮐러 : 낭만파에 속하는 독일의 시인

6) 하이네: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전통을 잇는 독일의 서정시인

7) 렐스타프 : 독일의 시인이자 음악 비평가

8) 자이들 :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고고학자, 극작가

곡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가난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작곡 활동을 했으며 1828년 11월 19일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슈베르트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을 깊이 존경했는데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베토벤 무덤 가까이에 매장되었다.

## 2. 슈베르티아데와 쇼버

슈베르트는 생존 당시에 그리 유명한 작곡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몇몇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그들의 후원을 받았고 그의 친구들은 개인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서 그의 작품을 알렸다. 당시 귀족을 위해 작품을 쓰고 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던 여러 작곡가들과는 달리 슈베르트는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가정, 시인, 음악인 등을 위해 곡을 썼고 그의 작품을 듣는 모임이 여러 가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들은 스스로를 슈베르티아데라 불렀고 슈베르트는 이 모임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슈베르트의 친구들은 슈베르트의 음악 활동을 적극 지원했는데, 앞서서도 언급했듯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1820년 “마왕”을 출판하기도 했다.

슈베르티아데의 일원이던 포글은 당대의 뛰어난 바리톤 가수로 슈베르트보다 29살 연상이었으며 슈베르티아데 모임에서 노래를 담당했다. 포글은 다수의 슈베르트 가곡을 연주하면서 그의 작품을 소개했는데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겨울 나그네>도 포글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고 유명해졌다. 그는 슈베르트 가곡의 탁월한 연주자요 해석가였다.

포글을 슈베르트에게 소개한 인물은 본 논문의 주제인 “제비꽃(Viola)D.786”의 시를 쓴 쇼버였다. 그는 스웨덴에서 태어나 빈(Wien)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스웨덴과 헝가리에 거주했다. 1839년에서 1847년까지 리스트(Liszt)의 비서로 활동했고, 바이마르(Weimar)에 정착하여 독일대공 공사관의 참사관으로 알렉산더(Karl Alexander)의 고문역을 맡기도 했다.

쇼버 역시 슈베르티아데의 일원으로, 예술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슈베르트의 작곡 활동을 적극 후원했고, 슈베르트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이

되었던 절친한 친구였다. 쇼버는 1821년 슈베르트의 오페라 <알폰조와 에스트렐라(Alfonso und Estrella)D.732>의 대본을 썼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가곡인 “음악에 부침(An die Musik)D.88-4”도 그의 시이다. 슈베르트는 1815년부터 1827년 사이 쇼버의 시에 많은 곡을 붙였는데 쇼버는 슈베르트에게 많은 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슈베르트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했고 생애의 말년을 드레스덴(Dresden)에서 보내고 1882년 생을 마감했다.

### 3. 슈베르트 가곡의 특징

슈베르트가 태어났을 당시는 시대적으로 낭만주의 음악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로 여러 문인들에 의해 낭만주의 서정시가 많이 발표되었고 피아노가 발달, 보급되었다. 그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고 시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시와 음악의 일치를 이루었다. 그는 색채감 있는 화성과 다양한 형식을 사용했으며 특히 그의 피아노 반주는 시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음악적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슈베르트는 가곡을 작곡함에 있어 시와 선율과 피아노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조화를 이룸으로 살롱음악 수준에 머물렀던 리트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렸고 독일가곡을 독립적인 음악의 장르로 발전시켰다. 그의 반주어법과 화성은 슈만, 브람스, 말러 등 후대 작곡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슈베르트 가곡의 특징을 시, 선율, 피아노 반주, 화성, 형식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시

독일 낭만 시문학의 눈부신 만개는 슈베르트에게 다양한 시를 제공했고, 낭만시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밤, 꿈, 방랑, 신비, 채워지지 않는 갈망 등 이었다. 슈베르트는 많은 시인들의 작품을 자신의 가곡 가사로 채택했는데 대략 90여 명의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600여 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 했다. 그 중에는 괴테, 쉴러(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sup>9)</sup>, 뮐러 등 유명한 시인도 있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도 있었다. 그의 시에 대한 탁월하고 본능적인 통찰력은 시인의 명성과 상관없이 그 시들을 훌륭한 가곡으로 만들어냈으며 시와

---

9) 쉴러 : 독일 시인이자 극작가, 철학자, 역사가,

음악을 긴밀히 연결시켜 독창성을 표현하여 시와 음악의 일치를 가져왔다. 이전 작곡가들은 시를 다룰 때에 시와 음악이 잘 어울리는 정도로 곡을 썼다면, 슈베르트는 시를 다루는 탁월한 능력으로 시와 음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도록 작곡했다.

## 2) 선율

슈베르트 가곡의 선율은 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작곡되었고 그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다. 그의 선율은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시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며 그는 다양한 선율을 선보였다. 그의 가곡 “들장미(Heidenröslein)”은 민요풍의 선율을 엿볼 수 있는 곡으로 성악 선율이 단순하고 꾸밈없는 민요적 특성 갖는다. 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의 5번 곡 “보리수(Der Lindenbaum)”은 행복했던 과거를 노래하는 유명한 곡으로 낭만적인 감미로움과 우수에 찬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다. 또한 슈베르트는 낭송적이고 격렬하며 극적인 선율도 사용했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담고 있는 곡으로 그의 대표적인 곡 “마왕”을 꼽을 수 있겠다. 이렇듯 슈베르트의 낭만적이고 훌륭한 선율의 흐름은 가곡 뿐 아니라 기악 작품에서도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 3) 피아노 반주

슈베르트의 가곡에서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선율과 함께 음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반주형태였다. 슈베르트는 반주부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 시의 내용을 음악으로 충분히 표현했다. 이는 이전 작곡가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이었다.

그의 피아노 반주는 단순히 선율과 화성의 뒷받침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악 파트와 협력하여 시의 운율, 시가 지닌 표현과 음악적 분위기를 암시하고 연출했다. 슈베르트는 “송어(Die Forelle)”에서 피아노 반주를 통해 물에서 헤엄치는 송어와 그로 인한 시냇물의 경쾌한 움직임을 묘사하고, “물위의 노래(Auf dem Wasser zu singen)”에서는 우아하게 넘실대는 물결을 표현한다. 또한 “죽음과 소녀(Der Tod und das Mädchen)”에서와 같이 낮은 음역의 반주는 어두움 또는 고통을 묘사하기도 한다. 이렇듯 그의 반주는 노래를 도와줄 뿐 아니라 상황을 묘사하고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배경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 감정의 움직임을 그림 같이 생생하게 표현한다. 또한 음악을 다음 장면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음악을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특히 전주, 간주, 후주는 음악의 감정을 충분히 묘사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체로 전주는 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후주에 의해 마무리 된다.

#### 4) 화성

슈베르트는 화성적인 색채감에도 민감했는데 그의 음악은 온음계적 화성이 지배적이나, 때때로 시의 극적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조성을 보류한 채 긴 악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반음계적 색채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급격한 전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장조와 단조 형태를 오가는 화성 기법도 능숙하게 사용했는데 “젊은 수녀(Die junge Nonne)”에서는 젊은 수녀가 종교적 헌신 이전에 느끼던 혼란의 감정과 평화로운 종교적 헌신 이후의 감정을 전조를 통해 잘 대비 되도록 표현했다. 슈베르트의 이러한 화성 기법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 5) 형식

슈베르트의 가곡은 음악적인 성격과 드라마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작곡형식과 성악 양식이 다양한 것이 그의 가곡의 특징이다. 슈베르트는 시어의 세세한 표현을 위해 다양한 형식을 사용했다. 가사에 곡을 붙인 방법이나 음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들은 독일 예술가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슈베르트는 다양한 형식을 사용했으나 대표적인 형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유절가곡형식(Strophic form)은 슈베르트의 가곡 “라우테에 부침(An die Laute)”와 같이 같은 선율에 여러 개의 다른 절을 붙이는 것으로 민요에서 유래된 형식이다. “라우테에 부침”은 2절의 유절가곡으로 각 절의 가사는 동일한 선율을 취한다.

② 변형유절가곡형식(Modified strophic form)은 유절가곡의 형식을 취하여 유절 가곡과 거의 흡사하지만 시에 맞는 표현을 위해 선율이나 리듬 등 음악의 일부분이 조금씩 달라진다. 슈베르트의 곡 “실비아에 부침(An Silvia)”를 통해 그 예를 찾아보면 이곡은 3절의 유절 가곡인데 1절에는 없었던 음표들이 2절, 3절의 6마디와 20마디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통절가곡형식(Through-composed form): 이탈리아풍의 칸타타에 근원을 둔 것으로 시에 따라 선율이 계속 달라진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슈베르트의 가곡 중 잘 알려진 “가니메드(Ganymed)”이다. 이 곡의 음악은 가사에 맞추어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 변화는 선율 뿐 아니라 조성을 포함하며 시의 전개에 따라 조성은 내림 가장조에서 마장조, 바장조로 변한다.

④ 발라드형식(Ballad form): 일반적으로 낭만시대의 발라드는 선율이 전체 음악 속에 조화되는 통일감이 있고 피아노의 반주도 성악의 동반자로서 선율과 마찬가지로 시의 의미를 표현한다.<sup>10)</sup> 본 논문의 주제인 “제비꽃(Viola)”이 바로 발라드 형식의 곡이다. 음악분석을 통해 선율과 피아노 반주가 음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0) 홍세원, “슈베르트 예술가곡의 역사적 고찰”, 연세교육과학, 제 41집('92.12), p. 126.

### III. Viola(D.786)의 음악 분석

#### 1. 가사번역

“비올라”는 슈베르트의 친구였던 쇼버의 시에 붙여진 곡으로 1823년 3월에 작곡되었고, 1830년 11월에 op.123으로 출판되었다. 쇼버의 시 ‘꽃의 발라드’는 슈베르트로 하여금 아주 긴 시를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곡은 진정한 봄이 오기 전에 일찍 꽃을 피운 제비꽃이 추운 겨울이 다시 돌아 왔을 때 죽는 모습을 묘사한다.<sup>11)</sup> 등장인물은 의인화된 제비꽃, 봄, 장미, 백합, 튜립, 히아신스 등으로 봄은 제비꽃의 약혼자로, 다른 여러 꽃은 제비꽃의 언니로 등장한다. 봄에 대한 환희와 봄이 오기 전 일찍 세상에 나온 제비꽃의 처량함을 의인화하여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

Schnee glöcklein, o Schnee glöcklein!	눈송이 좋아, 오 눈송이 좋아!
in den Auen läutest du,	목장에서 울려라
läutest in dem stillen Hain,	고요한 숲에서 울려라
läute immer, läute zu	계속해서 종을 울려라, 계속 울려라
Denn du kündest frohe Zeit,	너는 기쁜 순간을 가져 온다
Frühling nach, der Bräutigam,	봄을 향한, 신랑처럼,

---

11) Jim Samson, *The Cambridge history of 19th century music*, Cambridge, p. 158.

kommt mit Sieg vom Winterstreit,  
dem er seine Eiswehr nahm.

얼음을 막고,  
겨울싸움에서의 승리와 함께 온다.

Darum schwingt der gold'ne Stift,  
dass dein Silberhelm erschallt,  
und dein liebliches Gedüft  
leis', wie Schmeichelruf entwallt,

황금빛의 대가 울리고,  
은빛의 투구가 울리고,  
너의 사랑스러운 향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말 같이 퍼진다.

dass die Blumen in der Erd'  
steigen aus dem düstern Nest,  
und des Bräutigams sich werth,  
schmücken zu dem Hochzeitfest.

세상의 꽃들이  
메말랐던 보금자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신랑의  
결혼식을 위해 치장 한다.

Schnee glöcklein, o Schnee glöcklein!  
in den Auen läutest du,  
läutest in dem stillen Hain,  
läüt' die Blumen aus der Ruh'.

눈송이 좋아, 오 눈송이 좋아!  
목장에서 울려라  
고요한 숲에서 울려라  
고요한 꽃들에게 울려라.

Du Viola, zartes Kind,  
hörst zuerst den Wonnelaut,

제비꽃, 가냘픈 아이,  
먼저 기쁜 소리를 듣고

und sie stehet auf geschwind,  
schmücket sorglich sich als Braut.

빠르게 서서  
정성스레 신부로 치장한다.

Hüllet sich in's grüne Kleid,  
nimmt den Mantel sammetblau,  
nimmt das grüdene Geschmeid  
und den Brilliantentau.

초록의 옷을 입고  
바닷빛 파랑의 망토를 입고  
반짝이는 보석을 가지고  
빛나게 치장한다.

Eilt dann fort mit mächt gem Schritt,  
ner den Freund im treuen Sinn,  
ganz von Liebes glück durch glüht,  
sieht nicht her und sieht nicht hin.

서둘러 종종걸음으로 간다  
신뢰의 애정을 가지고 친구에게로,  
완전한 사랑의 행복 그 반짝거림으로,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Doch ein ängstliches Gefühl  
ihre kleine Brust durch wallt,  
denn es ist noch rings so still,  
und die Lüfte weh'n so kalt.

하지만 두려운 감정이  
그녀의 작은 가슴에 몰려 온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조용하고  
공기도 너무 차기 때문이다.

Und sie hemmt den schnellen Lauf,  
schon bestrahlt von Sonnenschein,

그녀는 뛰기를 멈춘다  
햇빛이 비취지만

doch mit Schrecken blickt sie auf,  
denn sie stehet ganz, ganz allein.  
Schwestern nicht, nicht Bräutigam,  
zugedrungen und verschmäht!

그녀는 놀랐고, 두렵다  
왜냐하면 그녀는 홀로 있기 때문이다  
언니들도 없고, 신랑도 없고  
너무 급했다 그래서 부끄럽다!

Da durchschauert sie die Scham,  
flieheth wie vom Sturm geweht,  
flieheth an den fernsten Ort,  
wo sie Gras und Schatten deckt,  
späht und lauschet immerfort:  
ob was rauschet und sich regt.

그녀는 부끄러움을 본다  
태풍으로부터 날아가는 것처럼  
가장 먼 곳으로 날아가는.  
잔디와 그림자로 덮인 곳으로  
계속 멀리  
누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처럼 날아간다.

Und gekränket und getäuscht  
sitzet sie und schluchzt und weint;  
von der tiefsten Angst zerfleischt,  
ob kein' Nahender erscheint.

아프고 실망하여  
그녀는 앉아서 훌쩍이며 운다  
아주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찢겨서  
마치 가까운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Schnee glöcklein, o Schnee glöcklein!  
in den Auen läutest du,  
läutest in dem stillen Hain,

눈송이 종, 오 눈송이 종아!  
목장에서 울려라  
고요한 숲에서 울려라

läut' die Schwestern ihr herzu!

제비꽃의 언니들을 향해 울려라!

Rose nahet, Lilie schwankt,  
Tulp' und Hyacinthe schwellt,  
Windling kommt daher gerankt,  
und Narciss' hat sich gesellt.

장미가 다가오고 백합이 흔들거리고  
튤립과 히아신스가 넘실거리고  
넝쿨도 나르시스도  
기어오른다.

Da der Frühling nun erscheint,  
und das frohe Fest beginnt,  
sieht er alle, alle die vereint,  
und vermisst sein liebstes Kind.

봄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기쁜 축제가 시작되자,  
하나 된 모든 것들이 보인다  
봄은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리워한다.

Alle schickt er suchend fort,  
um die Eine, die ihm werth.  
Und sie kommen an den Ort,  
wo sie einsam sich verzehrt.

봄은 제비꽃을 찾기 위해  
모든 꽃들을 보낸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온다  
외로움이 있는 곳에.

Doch es sitzt das liebe Kind  
stumm und bleich, das Haupt gebückt  
ach! der Lieb und Sehnsucht

거긴 사랑스러운 아이가  
말없이 창백하게 앉아있다.  
아! 사랑과 그리움

고통은 그녀를 부숴버렸다.

Schmerz hat die Zärtliche erdrückt.

Schnee glöcklein, o Schnee glöcklein!

in den Auen läutest du,

läutest in dem stillen Hain,

läut' Viola, sanfte Ruh'!

눈송이 좋아, 오 눈송이 좋아!

목장에서 울러라

고요한 숲에서 울러라

울리는 제비꽃, 부드러운 고요함!

## 2. 음악분석

“비올라”는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곡으로 서술적인 발라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름답고 풍성한 선율과 반주가 가곡의 배경과 시의 분위기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끌어간다는 것이 이 곡의 특징이다. 특히 전주, 짧은 간주, 후주를 통해 곡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시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장면을 제시한다. 화성적으로는 단순한 화성과 복잡한 화성이 고루 사용되고 전조가 자주 일어난다. 갑작스러운 조성 변화가 화법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한다.<sup>12)</sup>

이 곡은 가사와 음악적 주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부분은 곡의 전개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세부 부분으로 나뉜다.

---

12) Jim Samson, 앞의 책, p. 158.



1) 전체 악곡 구성

<표 1>

구조	A				B					C					
부분	전주	a	b	a'	c	d	e	f	a''	g	h	i	j	a'''	후주
마디	1~8	9~ 20	21~ 56	57~ 73	74~ 116	117~ 146	147~ 152	153 ~19 2	193~ 224	225 ~253	254 ~268	269 ~298	299 ~328	315 ~328	329 ~334
조성	A b				F	f	g	B- E b -C	A b	A b	E b	B	F	A b	A b
박자	4/4				3/4			4/4	3/4	4/4	2/2				
빠르기	Mässig				Etwas geschwinder		Sehr langsam	Geshwinder	Ziemlich langsam	Etwas geschwinder		Sehr geschwind			

## 2) A부분

A부분은 봄을 부르는 부분으로 전주에서 이어받은 봄을 알리는 종소리가 A부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 그 사이에 당당하게 등장하는 봄과 봄을 맞이해 단장을 하는 꽃의 모습이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세분화된 음악으로 표현된다.

### ① A부분 음악구조

<표 2>

구조	A			
부분	전주	a	b	a'
마디	1~8	9~20	21~56	57~73
구성	A b			
박자	4/4			
빠르기	Mässig			

② 전주

<악보 1> 마디 1 ~ 마디 4

The musical score shows a piano introduction in 3/4 time, key of B-flat major. It consists of four measures. The right hand (treble clef) plays a series of chords: a half note chord in the first measure, followed by a quarter note chord and a quarter rest in the second measure, and a quarter note chord and a quarter rest in the third measure. The fourth measure contains a half note chord. The left hand (bass clef) plays a steady accompaniment of quarter notes: B-flat, D-flat, F, and B-flat. The dynamic marking is *pp* (pianissimo) with a decrescendo hairpin over the first two measures. The tempo/mood is marked *Massig.* (moderate).

전주는 4마디의 주제가 2번 반복되는 짧은 8마디이지만 이 짧은 전주는 곡 전체를 이끌어가며 곡의 통일성을 이룬다. 마디 1에서 보면 피아니시모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decrescendo*를 함으로 가벼운 눈꽃이 날리는 배경적 모습을 묘사했고, 이음줄과 붙임줄 안에서의 스타카토는 마치 은은한 종소리를 듣는 듯하다.

③ a부분

<악보 2> 마디 9 ~ 마디 12

9  
Schnee glöcklein, o Schnee glöcklein! in den Au - en läu - test du,  
*pp*

노래 첫 부분의 반주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주제 선율이 세 번 반복되고 노래 선율 또한 전주의 느낌과 선율을 그대로 가져온다. 전주에서도 그랬듯이 반주는 같은 음을 계속치면서 눈꽃이 내리며 종을 울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 중에서도 눈 여겨 볼 것은 감탄사의 처리인데, 마디 9에 나오는 감탄사 'o'를 도약진행의 저음으로 처리함으로써 고요한 곡의 분위기와 눈꽃이 내리는 배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a부분에서 발성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율을 노래할 때에, 여리고 정적인 반주와 선율에 맞추어 깨끗하고 지속적인 호흡으로 음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울리다'라는 뜻의 'läute' 가사를 노래할 때에는 가사의 의미에 맞도록 울림 있는 소리로 노래해야 한다.

④ b부분

<악보 3> 마디 21 ~ 마디 23

21

Denn du kün - dest fro - he Zeit,

a부분에서 b부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등장하는 마디 21의 짧은 피아노 반주는 b부분의 주제가 되는 반주부로, 고요한 적막을 살며시 깨며 봄의 등장을 알리고 b부분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한다. 악보 2와 악보 3을 비교해 보면, a부분에서는 반주의 주제 선율이 2분 음표, 4분 음표의 수직화성으로 진행되었는데 b부분에서는 4분 음표, 16분 음표의 상승하는 분산화음으로 리듬이 세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박자의 변화 없이도 봄의 등장에 대한 환희를 표현하는 음악적 요소가 된다. 성악가는 b부분을 연주할 때에 봄을 알리듯 기쁘고 가볍게 연주해야 한다.

<악보 4> 마디 24 ~ 마디 27

Früh ling naht, der Bräu - ti - gam, kommt mit Sieg vom

Win - ter - streit,

마디 24 부터 마디 26에서 나오는 성악 선율은 그 첫 박의 음이 점차 한 음씩 상승되면서 '봄(Frühling)' '약혼자(Brautigam)' '오라(kommt)'를 강조하고 있다. 겨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등장하는 봄이 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⑤ a'부분

<악보 5> 마디 57 ~ 마디 60

57

Schnee - glöcklein, o Schnee - glöcklein!

A부분은 주제 선율의 반복으로 그 끝을 장식한다. 마디 57에서 볼 수 있듯, b부분에서 a'부분으로 넘어갈 때에 연속되는 'E b' 음을 슬러 안에서 스타카토로 끊어주며 경쾌했던 음악이 다시 차분해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때 정적인 주제선율로 돌아 온 반주는 반복되는 첫 주제에 세분화된 리듬이 더해지면서 곡의 전개가 점점 봄에 가까워짐을 표현한다.

### 3) B부분

곡의 주인공인 제비꽃이 등장하는 부분으로 약혼자인 봄이 오는 소식을 들은 제비꽃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장면과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음을 알고 좌절하는 장면을 그린다.

#### ① B부분 음악구조

<표 3>

구조	B				
부분	c	d	e	f	a''
마디	74~116	117~146	147~152	153~192	193~224
구성	F	f	g	B-E b -C	A b
박자	3/4			4/4	
빠르기	Etwas geschwinder		Sehr langsam	Geshwinder	

② c부분

<악보 6> 마디 74 ~ 마디 77

Etwas geschwinder.

Du Vi - o - - la, zar - tes Kind, hörst zu-

조성과 박자가 바장조의 3/4박자로 바뀌면서 노래가 밝아 졌으며 특히 빠르기가 조금 빠르게(Etwas geschwinder)로 바뀌면서 경쾌함을 더한다. 본격적으로 곡의 주인공인 제비꽃이 등장하게 되는데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진 한 마디 반의 짧은 도입부는 기분 좋은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며 동일한 반주 형태가 10마디에 걸쳐 지속된다. 성악 선율에서는 짧은 음가의 점음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점음표 가볍게 잘 살려주어 경쾌한 분위기가 잘 표현되도록 노래해야 한다.

<악보 7> 마디 84 ~ 마디 87

84

und sieste- het auf ges chwind, schmü - cketsorglich sich als Braut.

마디 84부터는 반복되던 반주형태가 바뀌는데 수직 화성으로 움직이던 왼손 반주가 옥타브로 도약하며 마디가 거듭할수록 한 음씩 상승된다. 이렇듯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반주는 봄이 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제비꽃이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함을 표현한다. 시에서는 초록색 가운, 파란색 벨벳 코트, 금색 보석과 다이아몬드 등의 시어를 등장 시키면서 추운 겨울을 깨고 나와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 제비꽃을 표현했다.

<악보 8> 마디 97 ~ 마디 100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97 to 100. It consists of three staves: a vocal line at the top, a piano right-hand line in the middle, and a piano left-hand line at the bottom.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whole note chord in measure 97, followed by rests. The piano introduction begins in measure 98 with a 'thau.' marking. The right hand features a complex, ascending melodic line with many sixteenth notes and slurs. The left hand provides a steady accompaniment with eighth and sixteenth notes. The piece concludes in measure 100 with a final chord.

그 후 마디 97부터의 피아노 간주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음역을 통해 제비꽃이 기대감과 사랑에 가득차서 발걸음을 재촉할 것을 예견한다.

③ d부분

<악보 9> 마디 117 ~ 마디 122

117

Doch ein ängst - - li ches Ge - fuhl ih - re

*p*

121

klei - - ne Brust durch wallt, denn es

위에서 언급했던 상승 구조의 간주는 c부분의 마무리에서 반복되는데, 이 상승구조의 반주 후 d부분 첫 마디인 마디117에 나타난 한 마디의 짧은 피아노 반주는 예기치 못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급작스러운 음역의 변화와 예고 없이 임시표를 통해 나타난 조성 변화, 그리고 반주의 리듬형(♩♩♩♩)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앞으로의 곡 전개의 복선 역할을 한다. 마디 118 ~ 마디 129는 제비꽃이 느끼는 무엇인지 모를 불안정한 감정과 두려움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악보 10> 마디 122 ~ 마디 130

122  
walt, denn es ist noch rings so

125  
still, denn es ist noch

128  
rings so still, und die

마디 123에서 같은 음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에 긴장감을 유지해야하며 시어 'still(조용한)'을 노래할 때에는 반음 상승하지만 볼륨이 커져서는 안되고 *p*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s/발음이 강조되어야 하고 발성적으로 명확하고 깔끔한 소리가 요구된다. 마디 123 ~ 마디 126의 선율이 마디 127에서 한음 낮아진

음역으로 동일하게 나오는데 낮아지는 음역을 통해 더욱 고요함과 적막함을 느끼도록 표현했다.

<악보 11> 마디 130 ~ 마디 136

130 und die Lüf - - te weh'n so kalt, und die

133 Lüf - - te weh'n so kalt. Und sie hemmt den schnel - len

136 Lauf, schon be -

마디 130부터 나오는 멜로디선율은 매섭게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을 노래하고 마디 135의 반주에서는 16분 음표의 짧은 음가로 진행되던 리듬이 8분 음표로 정박에 연주되면서 급히 움직이던 제비꽃의 발걸음이 멈춰선 것을 표현해준다.

<악보 12> 마디 137 ~ 마디 143

137  
strahlt von Sonnen-schein, doch mit Schrecken blickt sie

140  
auf, - denn sie ste - het ganz, -

*fz* *p*

마디 이후 139에서는 한 마디를 온음표로 채우면서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정적인 반주 위로 성악 선율만 노래하면서 모든 것이 멈춰 버린 듯한 세상에 홀로 있는 제비꽃과 그 외로움, 두려움을 표현한다. 마디 139에서 마디 140으로 넘어갈 때에 *fz*에서 *p*로 급격한 셈여림의 대조와 온음표로 깔린 정적인 반주위로 혼자 남은 시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한다.

④ e부분

<악보 13> 마디 147~마디 148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47 and 148 is presented in a grand staff format. The top staff is a treble clef with a whole rest in both measures. The middle staff is a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It begins with a forte (*fp*) dynamic, marked *Sehr langsam.* (Very slow). The right hand plays a series of chords in a descending sequence, with a piano (*pp*) dynamic marking at the end of the first measure. The left hand plays a simple bass line. The bottom staff is a bass clef with a whole rest in both measures.

내림 나장조로 빠르기가 매우 느리게(*Sehr langsam*)인 e부분은 현실을 인지한 제비꽃의 독백과 같은 부분으로 마디 147에서의 오른손 반주는 이 부분 전체에 걸쳐 나오며 제비꽃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친 태풍과도 같으며 암담한 현실을 묘사한다.

<악보 14> 마디 149 ~ 마디 152

149 Schwe - - - stern nicht, - nicht Bräu - - - ti - gam, - zu - ge -

151 drun - - - gen undver- schmächt! -

마디 149 ~ 마디 152에서 성악 선율은 하행하는 구조를 가지며 점점 음역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행 프레이즈는 제비꽃의 낙담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며 상승음역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곡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⑤ f부분

<악보 15> 마디 153 ~ 마디 157

Geschwinder.

153 Da durch- schau - - - ert sie die Scham, \_\_\_\_\_

*p*

157 — flie - het

이 부분은 매우 느리게(Sehr langsam)에서 빠르게(Geschwinder)로 박자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극적 긴장감을 고조 키신다. 마디 154 부터의 주제 선율은 성악 선율이 아니라 왼손의 반주 선율이다. 마디 154 ~ 마디 168까지 이어지는 왼손 반주는 계속된 단 3도의 도약으로 어디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며 휘몰아치는 태풍이 제비꽃을 데려가 버리는 가사의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악보 16> 마디 169 ~ 마디 173

169  
regt. Und ge - krän - - - ket

172  
und ge - täuscht

계속해서 단 3도로 진행하던 왼손 반주가 마디 169 부터는 그 주도권을 성악 선율로 넘겨주고 일정 패턴을 반복한다. 주선율이 된 성악 선율은 가슴 깊이 상처 받고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제비꽃의 상황을 노래한다.

<악보 17> 마디 178 ~ 마디 182

178 **단3도** **단3도** **단3도**  
 — von der tief - - sten Angst zer - - -  
 181  
 fleischt, von der

마디 178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 단3도의 하행 진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선율은 두 번 반복된다.

⑥ a''부분

<악보 18> 마디 197 ~ 마디 200

197

Schnee - glöck lein, o Schnee - glöck- lein!

*simile*

이 부분은 B부분의 마무리이자 지금까지 음악을 이끌어 온 주제인 제비꽃의 이야기가 그 막을 내리는 부분이다. 조성은 곡이 시작 될 때의 첫 조성인 내림 가장조로 돌아간다. 주제 선율은 처음 음가에서 두 배로 확장되어 노래 되는데 주제 선율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악가는 이 부분을 노래 할 때에 진짜 봄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봄이 오기 전 너무 일찍 깨어나 버린 제비꽃에 대한 애처로움을 가지고 노래해야 한다.

#### 4) C부분

이제 비로소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진짜 봄이 오는 부분이다. 드디어 도착한 약혼자는 다른 꽃들을 보내어 보이지 않는 제비꽃을 찾는다. 그러나 제비꽃은 가엽게도 홀로 외로이 고개를 떨구고 죽은 채로 발견된다.

##### ① C부분 음악구조

<표 4>

구조	C					
부분	g	h	i	j	a'''	후주
마디	225 ~253	254 ~268	269 ~298	299 ~328	315 ~328	329 ~334
조성	A b	E b	B	F	A b	A b
박자	3/4		4/4		2/2	
빠르기	Ziemlich langsam		Etwas geschwinder		Sehr geschwind	

② g부분

<악보 19> 마디 225 ~ 마디 226

Ziemlich langsam.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in treble clef and the bottom staff is in bass clef.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tempo marking is 'Ziemlich langsam.' The piece begins at measure 225 with a piano (*p*) dynamic. The right hand plays a series of eighth notes, and the left hand plays a bass line with a long slur over the first three measures.

드디어 봄이 오고 장미, 백합, 튜립 히아신스 등 갖가지의 꽃이 피어나는 부분이다. 박자는 춤곡 느낌의 3/4박자로 바뀌고 빠르기는 매우 느리게 (Ziemlich langsam)로 빠르지 않지만 밝고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장면을 충분히 표현한다.

마디 225의 간주에서 나오는 왼손 반주는 스타카토와 당김음으로 활발하고 경쾌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g부분 전체를 이끌어가는 반주부의 오른손은 상행하는 아르페지오로 밝은 분위기를 표현한다.

<악보 20> 마디 229 ~ 마디 233

229  
Ro - se na - - het, Li - lie schwankt, Tulp' und

232  
Hy - a - cin - - - the schwellt, Windling

g부분의 노래 선율은 악보 20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프레이즈가 모두 약박에서 시작한다. 이는 꽃이 피는 발랄하고 가벼운 시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연주할 때에 프레이즈의 시작인 약박이 발성적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보 21> 마디 235 ~ 마디 238

rankt, und Nar - ciss', — und Nar - ciss' — hat sich ge - sellt.

악보 21에서 표시된 부분의 선율이 g부분 전체에 걸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g부분의 음악과 분위기의 통일성을 가져온다.

③ h부분

<악보 22> 마디 254 ~ 마디 255

254 Etwas geschwinder.

The musical score shows two measures, 254 and 255. The tempo/mood is marked 'Etwas geschwinder.' (Somewhat faster).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The piano part begins with a piano (*p*) dynamic. The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pattern in the bass and chords in the right hand, with some melodic lines in the upper register.

고대하던 봄이 등장하는 h 부분에서는, 악보 3을 통해 A부분에서 살펴보았던 반주부의 봄의 주제가 비슷하게 다시 사용되며 행복한 봄의 축제를 묘사한다.

<악보 23> 마디 265 ~ 마디 268

265  
und vermisst sein lieb - - - - -stes

*fz p* *fz p* *pp*

봄은 많은 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 제비꽃을 찾지만 아무리 찾아도 제비꽃이 보이지 않는다. 악보 23을 보면 템포의 변화 없이 화성과 셈여림의 변화로 불길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셈여림 *fz*와 *p*의 대조를 이룬 뒤 *pp*로 더욱 긴장감을 극대화 해가며 선율은 *pp*를 유지한 채로 상승한다. 또한 많은 임시표를 통한 복잡한 화성은 더욱더 불길한 긴장감을 더해준다.

④ i부분

<악보 24> 마디 269 ~ 마디 270

Sehr geschwind.

Kind.

*p*

i부분은 약혼자인 봄이 보이지 않는 제비꽃을 찾는 부분으로 매우 빠르게 (Sehr geschwind)의 2/2박자로 음악이 빠르고 긴박하게 진행된다. 악보 24에서 볼 수 있듯 i부분 전체를 이끌어가는 빠른 리듬형(♪♪♪♪)은 음악의 긴박함을 더해준다.

<악보 25> 마디 281 ~ 마디 287

281  
Werth.  
cresc.

285  
Und sie  
decresc.

악보 25는 곡의 절정으로 가기 위한 간주 부분으로 곡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임시표를 통한 전조가 일어나며 오른손 반주의 심한 도약은 마치 제비꽃을 찾아 이리 저리 헤매는 장면을 그리는 듯하다.

<악보 26> 마디 288 ~ 마디 291

288

Und sie kom - men an den Ort,

*decresc.*

*dim.*

악보 26은 i부분의 절정이자 곡 전체의 절정으로 죽어있는 제비꽃을 발견하는 부분이다. 반주부의 리듬형은 (♪♪♪♪)에서 (♩♩♩♩)으로 확장되고 썸여림은 *decresc.* 와 *dim.*이다. 성악 선율은 이 곡 전체의 음역 중 가장 높은 음으로 노래하며 전체적으로 하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⑤ j부분

<악보 27> 마디 299 ~ 마디 30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top staff is a vocal line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4/4 time signature. It begins at measure 299 with a whole note chord (F4, A4, C5) and remains silent in measure 300. The word "zehrt." is written below the first note. The middle and bottom staves are piano accompaniment. The middle staff is in treble clef and the bottom staff is in bass clef. Both start with a whole rest in measure 299. In measure 300, the piano part features a melody of eighth notes: F4, A4, G4, F4 in the right hand, and F3, A3, G3, F3 in the left hand. The piano part is marked with a dynamic of *p* (piano).

악보 27은 j부분 반주부의 모티브가 된다.

<악보 28> 마디 305 ~ 마디 311

305

ach der Lieb und Schn sucht Schmerz hat die Zärt - li - che er -

309

drückt, hat die Zärt - li - che er - drückt.

*pp*

이 부분의 가사는 '아! 사랑과 그리움 고통은 그녀를 부숴버렸다.'이다. 이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슈베르트는 정적인 반주위로 연속하는 같은 음을 노래하도록 작곡했다. 이 부분을 노래할 때에는 프레이즈의 마지막까지 음악의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도록 연주해야 한다.

<악보 29> 마디 311 ~ 마디 314

이 부분은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k부분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임시 표를 통해 점차로 조를 바꿔 마디 314에 이르러서는 내림 가장조가 된다.

⑥ a'''

<악보 30> 마디 315 ~ 마디 316

곡의 마지막인 이 부분은 이 곡 전체의 주제 선율이자, 전주를 비롯해 곡의 시작에서 등장한 a와 거의 흡사하게 반복된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악보 30에서 볼 수 있듯 음악의 도입부가 처음 시작의 전주보다 무려 두 옥타브나 낮아졌다는 것과 가사가 '계속해서 종을 울려라(immer, läute zu)'에서 '울리는 제비꽃, 부드러운 고요함(Viola, sanfte Ruh)'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눈꽃에게 계속해서 종을 울리도록 노래했으나, 이제는 죽은 제비꽃이 바로 울리는 종이 된 것이다. 슈베르트는 시의 전개와 이 작은 시어의 변화를 처음과 같은 선율이지만 낮은 음역의 반주로 표현한다. 슈베르트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 봄을 부르던 곡을 제비꽃을 애도하는 곡으로 바꾸었고, 일찍이 겨울을 깨고 나와 봄을 기다리다 죽은 제비꽃을 기리며 곡을 마무리한다.

⑦ 후주

<악보 31> 마디 329 ~ 마디 334

후주 부분은 전주와 흡사하나 3화음의 간결한 화성으로 진행되었던 전주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전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풍성해진 후주의 화성은 슬픔과 애도의 여운을 가슴에 남기도록 도와준다.

## IV. 결론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들이 그의 곡 “Viola(D.786)”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곡은 발라드형식으로 ABC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곡은 주제 선율만 반복될 뿐 가사나 음악적 반복이 없이 서사적으로 흘러가지만 주제가 되는 a부분은 총 네 번 등장하고 전주와 후주도 동일한 선율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이 곡의 가사가 된 시는 슈베르티아데의 일원으로 슈베르트의 친구였던 쇼버가 쓴 “꽃의 발라드”이다. 이 시는 주인공인 제비꽃이 봄이 오기 전 일찍 꽃을 피웠다가 죽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봄과 꽃들을 의인화하여 봄에 대한 환희와 봄이 오기 전 일찍 세상에 나온 제비꽃의 처량함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슈베르트는 긴 시를 탁월하게 음악적으로 표현했다.

셋째, 슈베르트의 선율은 시와의 일치성을 가져온다. 대체로 짧은 동기의 반주가 각 부분에서 반복되고, 성악 선율에서도 일정 리듬이나, 선율의 동기가 그 부분에서 반복되어진다. 반복되는 선율의 음역이 상승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하고, 하행하는 프레이즈를 통해 낙담되는 주인공의 심리가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악보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음 혹은 단3도로 진행되는 선율은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스타카토의 연속적인 음은 종소리를 묘사하기도 한다.

넷째, 슈베르트의 피아노 반주는 단지 성악 선율을 받쳐주는 반주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바로 성악 선율과 함께 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곡에서는 장면이 바뀔 때 마다 한 마디 내지 두 마디의 짧은 피아노 반주가 나

오는데 이 짧은 간주는 성악 선율에 앞서 새로운 장면의 분위기와 배경을 암시한다. 또한 짧은 전주와 후주 또한 각각 곡의 배경을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음악을 마무리 한다.

다섯째, 슈베르트는 화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를 표현하고 분위기를 묘사했다. 임시표를 사용하여 조성이 점차적으로 변할 뿐 아니라 시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장조와 단조 사이를 넘나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극적인 상황에서는 각 마디마다, 혹은 각 박자마다 다른 화성으로 곡이 진행되며 감화음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들이 고루 보여지는 곡으로, 슈베르트는 서사적인 긴 시를 선택했고 그에 걸맞는 발라드 형식을 취해 곡을 썼다. 특히 이 곡에서는 그가 일구어 낸 반주부의 혁신적인 변화가 잘 드러나며 그의 선율은 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고 또한 그의 탁월한 화성적 색채감은 곡의 분위기와 시를 충분히 묘사했다.

## 참고문헌

### 1. 국내

#### 1) 사전류

세광음악출판사 편집위원회. 음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2.

사전편찬위원회. 음악용어사전. 세광출판사. 1991.

#### 2) 일반서적

김문자 외 지음. 「들으며 배우는 서양 음악사」. 심설당. 1994.

홍세원. 「서양음악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공저. 「두길 서양음악사」. 나남출판사. 1997.

#### 3) 번역서적

Joseph Machlis, Kristine Forney. 신금선 역. 「음악의 즐거움(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Carol Kimball. 채은희 역.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하권」. 형설출판사. 2004.

Grout, Donald J. and Claude V. Palisca. 1988년 개정 4판 「서양음악사」. 세광출판사. 1996.

#### 4) 논문

손정아. “괴테의 Wilhelm Meister 중 Harfenspieler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볼프 가곡의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홍세원. "슈베르트 예술가곡의 역사적 고찰." 연세교육과학, 제 41집. 1992.

## 2. 외국

Jim Samson. *The Cambridge history of 19th century music*. Cambridge. 2001.

Sadie, Stanley,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ition.

London: Macmillan Publishers, 2001.

Reed, John. *The Schubert Song Companion*. New York: Mandolin, 1997.

## ABSTRACT

A Study on the Art song, "Viola(D.786)" by F. Schubert

Park, Jin Sil

The Department of Music(Vocal Music Major)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flow that romantic poem developed conspicuously and piano developed and was spread in the 19th century, Franz Peter Schubert(1797-1828) upgraded German melody to the stage of art. He added music to diverse poems of many artists, and also he used diverse forms to be suitable for poems. His melody was beautiful and rich, and beauty of this melody showed in instrumental music as well as vocal music. He had peculiar talent to handle harmony. Then, his music is modulated naturally, and it goes and comes to major key and minor key freely, and he used much. His harmonic technique had influence on later generation composers also. What should be observed is the role of piano accompaniment. Schubert upgraded role of piano accompaniment which played the role of supporting vocal music melody. His piano

accompaniment played the role of suggesting background and atmosphere, and it became important element to lead music with vocal music melody while expressing poetic language.

This thesis is what studied music of Schubert, Viola(D.786). Then, I examined his musical features in work.

This music has structure of ABC with ballad form, and rhythm and tonality

change as occasion demands in accordance with poem and musical contents. Only subject melody is repeated from time to time. Then, subject melody brings unification sense of music whole. Poem which became words is narrative long poem to be ballad of flower. Then, the artist is his friend, Shover. This poem is story that violet which bloom too early before winter passes fails to meet spring and die. Then, violet and spring are expressed by being personified.

Melody brings consistency with poem. And, short motive is repeated and transformed in relevant part on the whole. In addition, progression of 3 do

interval shows much. Then, progression of semitone or short 3 do and staccato of continuous sound etc. were used in describing meaning and atmosphere of poem effectively. In this music, short piano interlude to appear whenever scene changes plays the role of suggesting atmosphere and background of new scene before vocal music melody, and sometimes accompaniment melody becomes main melody to express poem.

Schubert expressed poem effectively and described atmosphere through change of harmony. We can see that gradual change of tonality through temporary table arises whenever scene changes in accordance with contents of poem, and we can see that his music goes and comes to major key and minor key naturally. In dramatic situation, music is progressed to different harmony at every phrase and every rhythm, and was used. Like this, I tried to help understanding by examining diverse musical features of Schubert in work and presenting table and sheet music.

This is difficult work that performance time is 10 minutes or more, there is frequent change of tonality, and diverse melody should be digested. But, is we play through complete analytical approach and practice, this is a great music to be able to show musical features of Schubert diversely.